



도시를 스크린 삼은 ‘독립영화제’ 목포 물들인다

지역 영화제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목포 국도1호선독립영화제는 영화관 안에 머무는 행사를 넘어 원도심과 야외정원, 지역 문화공간을 영화로 연결하며 독립영화제의 내외연을 넓히고 있다.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정성우 집행위원장)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목포시 일원에서 ‘제13회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를 선보인다.

올해 영화제는 ‘경계를 넘어, 영화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1회 당시 5편 상영으로 출발한 영화제는 올해 총 1241편의 작품작 가운데 해외 6개국 작품을 포함한 국내외 장·단편영화 77편을 선보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영화제로 성장했다.

영화제는 협동조합 시네마엠엘, 목포아트시네마, 목포극장,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등 목포 곳곳에서 이뤄진다. 경쟁·비경쟁·특별상영을 비롯해 관객과의 대화, 강연, 포럼, 시민참여 행사 등이 함께 마련돼 관객과 영화인의 만남을 넓힌다.

개막식은 13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진다. 개막작으로는 장서순 감독의 ‘깡년기’ 소

녀 투쟁기’, 유가영 감독의 ‘계(鷄) 쫓겨라’, 박재범의 ‘살아있게’, 양희진 감독의 ‘나무가 기운 쪽으로’가 상영돼 영화제의 시작을 알린다.

올해 영화제의 특징은 도시형 영화제로서의 성격을 한층 강화한 점이다. 기존 상영관 중심의 틀을 넘어 목포의 일상 공간과 문화자원을 영화제의 무대로 끌어들이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를 걷고 머물며 영화를 만나는 방식이다.

이같은 로드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는 변영주 감독 초청 강연 ‘로드 클래스’가 마련된다. 장진재 감독의 영화 ‘배우의 시간’ 상영과 강연으로 구성된 ‘마스터클래스’도 진행된다. 독립영화 창작 현장 경험과 고민을 관객과 나누는 자리다.

시네마엠엘 옥상시네마에서는 영화제가 주목한 작품을 소개하는 ‘로드초이스’ 섹션이 준비된다. 장편으로는 소상섭 감독의 ‘잠 못 이루는 밤’과 장진

재 감독의 ‘배우의 시간’, 이종수 감독의 ‘나타 금영’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목포 영화창작단체 씨네로드가 영화문화공동체 프로그램 MM큐레이션을 통해 직접 만든 단편들도 상영된다. 이학준 감독의 ‘육상 위의 외침’과 노동현의 ‘뒷밭’, 위은경·손광민 감독의 ‘선희 이모’ 등 지역 창작자들이 감각을 영화로 풀어낸 작품들이 소개된다.

‘월드초이스’ 섹션에서는 서울국제취소슬러영화제와 협력한 프로그램과 동남아시아 우수 작품이 새롭게 선보인다. 단편으로는 팜 응옥란의 ‘축복 받은 땅’, 코지 리찰의 ‘악동 시네마 클럽’, 칭키아의 ‘편애하던 나이 할머니’, 넬슨 여의 ‘당신의 눈을 통해’, 다네 산의 ‘내 마음의 햇살’, 폴렌 리의 ‘더욱 더 멀리’, 소치타 반의 ‘데이지처럼 산뜻한’, 보렌 치트의 ‘골든 드래곤’이 스크린을 채운다. 장

편으로는 리론 살트의 ‘리빙 을지로’, 가브리엘 아소린의 ‘어젯밤 나는 테베를 정복했다’, 안토니오 무뇨스 데 메사의 ‘산타 제타’ 등이 소개돼 국내외 독립영화의 다양한 흐름을 보여준다.

도시 공간을 활용한 상영 또한 이어진다. 구 목포 세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품은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야외정원에서는 ‘길 위의 문치’와 ‘공동경비구역 JSA’ 특별상영회가, 원도심 공감카페와 만인제웰컴센터 등 지역 공간을 활용한 ‘점방시네마’가 운영된다. 마지막 날에는 선정된 작품 중 1편을 폐막작으로 선정해 상영한다.

집행위는 영화관뿐 아니라 목포의 일상적인 공간과 문화자원을 영화로 연결해 도시 전체를 영화제의 무대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부대행사로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로컬 플리마켓, 목포미식갤러리에서 목포 9미(味)를 콘셉트로 한 음식 체험, 쿠킹클래스, 외식 창업교육 등 미식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영화인과 관객의 만남 역시 영화제의 중요한 축인 만큼 경쟁작 ‘빈집의 연인들’에 출연한 기주봉 배우가 목포를 찾는다. 영화제 기간 전국에서 감독과

배우, 영화 관계자 200여 명이 목포를 방문하고, 1000여 명의 관객이 영화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제의 성장세에 비해 운영 여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지자체 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지역 문화브랜드로 자리 잡은 영화제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우 집행위원장은 “영화제의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화예술을 비용이 아닌 도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과 행정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는 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 성장시켜 온 목포의 대표 문화자산”이라며 “이제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바수도권 독립영화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스튜디오 투어 전경.



5·18 사적지 방문 모습.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창제작 활동 본격 돌입

아시아문화전당, 6개국 8개 팀 예술가·연구자 참여

기술사회 속 미래 공동체 탐구…11월 결과 전시 공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의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8개 팀(10인)이 최근 임주를 마치고, 프로젝트 창제작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ACC는 지난 2015년부터 테크놀로지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예술가와 연구자, 전문가들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창제작 플랫폼으로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사업을 추진해 올해로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올해 레지던시는 ‘사변적 공동체’(Speculative Communities)를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사회 속에서 새롭게 구성될 미래 공동체를 다양한 기술·매체를 통해 상상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로 선보인다. 지난 4월 진행된 국제공모에는 아트&테크 전문가 및 예술가의 프로젝트 제안서 280여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중국, 프랑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캐나다 등

6개국 8개 팀의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5개월간의 창제작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결과물을 전시로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 크리에이터들은 인공지능(AI), 키네틱 미디어, 오디오비주얼, 입체음향 등 다양한 기술과 매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연구·제작한다. 지난 1일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ACC 공간 및 창제작스튜디오를 둘러보고,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탐방하는 5·18워크를 통해 민주·인권·평화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백양사 템플스테이에서는 불교문화의 공동체 실천 방식을 체험하고, 참여자 간 교류와 프로젝트를 공유하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창제작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ACC는 레지던시 주제를 심화하는 전문가 강연을 비롯해 프로젝트의 콘

셉트와 제작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분석하는 창제작 회의, 전문가 자문, 리서치 투어 등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의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3회에 걸쳐 진행되는 ‘크리에이터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참여자들의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개발 작업 과정을 공유하는 것 외에도 광주지역 문화예술기관 레지던시 참여자들의 작업 발표 세션을 연계해 전문가와 예술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레지던시 결과물은 오는 11월 19일부터 10일간 ACC 창제작스튜디오에서 전시로 공개된다. 전시 기간에는 참여 크리에이터스의 테크 토크, 퍼포먼스,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김상욱 전당장은 “올해로 12화제를 맞은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는 국제적인 융합 창제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ACC는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의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탐구하는 창제작 콘텐츠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그래픽 디자인의 세계…예술적 지평 조망

무등아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회원전, 5일까지 무등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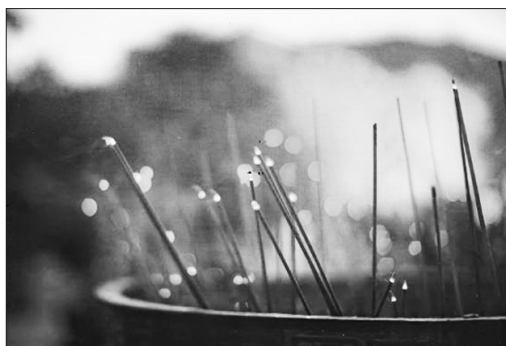
무등아트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29회 회원전을 지난 7월 30일 개막, 오는 5일까지 전남광주특별시 동구 예술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강맹순 김우진 김지영 김홍식 마혜경 박근수 박숙자 박순덕 서경애 서원길 이맹자 임재을 전정애 정기문 최선심 황윤수 임동희 작가 등 회원 17명이 참여했다. 출품작은 서양화와 한국화를 비롯해 서예, 사진, 디자인, 민화, 서각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50점.

무등아트협회는 1976년 1월 당시 전남매일신문 디자인실장을 맡고 있던 서원길씨가 광주지역 디자이너들과 뜻을 모아 ‘무등그래픽회’를 창립했다. 이어 그해 4월 광주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창립전을 가져 그래픽 디자인이 생소하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산파역을 했다.

무등아트협회는 1995년 전일미술관에서 16회 회원전을 마친 뒤 휴식이 들어갔다가 11년 만인 2006년 북구청 갤러리에서 17회 회원전을 열었다. 이후 또다시 휴회를 하다가 9년 만인 2015년 광주문화재단 갤러리에서 18회 회원전을 진행한 이후 코로나19 때도 쉬지 않고 올해까지 매년 회원전을 열어 오고 있다.

또 2017년과 2018년에는 목포와 순천에서 각각 순



김우진 작 ‘생명’

회전을 열었고, 2020년부터 ‘무등아트오늘회’로 이름을 바꿨다가 지난해 ‘무등아트협회’로 개명했다.

김지영 무등아트협회 사무처장은 “돌이켜보면 1976년 무등그래픽회라는 이름으로 첫 걸음을 내딛던 그 시절, 우리는 불모지라 같았던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시각 문화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열정 하나로 뭉쳤다”며 “격변의 세월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지만, 예술을 향한 열망은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순수 미술과 전통 민화, 디자인,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무등아트협회로 성장해 당당히 반세기의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이벤트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9월 6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결제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후기 이벤트’와 ‘문화누리카드 무비데이’ 등 총 2개 이벤트로 운영되며, 각각 문화누리카드 이용 후기 작성, 영화 분야 가맹점 이용 인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대형마트 상품권 및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풍성한 한가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명절 전 9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당첨자는 신청 당시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안내된다.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이번 이벤트가 관내 이용자들이 가족과 함께 문화누리카드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결제 인증 이벤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광주문화누리카드 블로그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93.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